

基礎科學育성에 과감한 투자를..

김 명 국
(서울大 齒大學長)

오늘날 과학기술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를 과학기술사회라고 한다. 선진국들은 일찌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장벽을 높여 가면서 과학기술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에 선진국진입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흥이 당면 최대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효과적인 도입과 산업제품생산에 필수적인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 능력의 개발이 긴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해내는데 밑거름이 되는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고급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첨단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가 괄목할만하게 성장된 것이 사실이나, 응용기술개발에 비하여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겠다. 1988년도 연구개발비의 분포를 보면 정부출연기관이나 국·공립연구기관에 비하여 대학이 열세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대학이 기본적으로 그 성격상 기초과학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대학에는 고급연구인력의 절대다수가 있으며 대학이 창조적인 기초과학연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기초이론과 기술의 개발을 주도할 수 있었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수준높은 연구요원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선진국에 의존해오던 고급두뇌의 자급자족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 과학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시설을 과감히 확충하여 내실을 기하고 대학교수의 연구비를 대폭 증액하며 교수책임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시간을 연구에 전념케하고 국제 학술교류를 활성화하여 선진이론의 신속한 도입을 가능케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은 한구과학기술진흥의 막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초과학의 발전은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우수한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원박사 과정을 강화하고 장학제도를 확충하며, 연구원제도를 도입하여 신진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연구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연구종사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연구직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배려도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는 기초과학의 육성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정책담당자들에게 기초과학의 육성을 국가적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기대하며 기초과학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에게는, 오늘의 시대상황에 보다 투철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필코 선진기술국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지가 요망된다